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831>

JCCT 2022-11-102

##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과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 The Correlations among Psychological Control in Parents with a child, and Empathy, Humor Sense, Parenting self-efficacy

김지현\*

Kim Ji-hyun\*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과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이하 유아의 부모들에게서 수집한 203부의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게, 심리적 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공감능력 및 유머감각과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 '죄책감유발'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공감능력의 '인지적공감'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통제'와, 유머감각의 '유머에 대한 선호도'는 심리적 통제의 '동일체적양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 '죄책감유발', '자율성통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심리적 통제의 '동일체적양육'이외의 요인들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요어** :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심리적 통제, 양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empathy, humor sense parenting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Korean parents with a child. For research, 203 parents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5 attending kindergarten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parenting self-efficacy was the lowest and psychological control was the highest. In addition, among 'empathy', 'humor sense' and 'autonomy support', 'guilt inducement'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ddition, 'cognitive empathy' on sub factor of empath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utonomy control'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ference for humor' on sub factor of humo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dentical parenting'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Among parenting self-efficacy and 'autonomy support', 'guilt inducement', 'autonomy control'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correlation. 'Difficulty in parental roles' on sub factor of parenting self-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other factors except 'identical parenting'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Key words** : Empathy, Humor Sense, Parenting Self-efficacy, Psychological Control, Parenting

\*정회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30,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wink723@hanmail.net

Dept. Ph. 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  
Korea

## 1. 서 론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란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관계에서 자녀를 조종하거나, 부정적인 언어 및 행동 표현과 비난을 통해 자녀를 심리적, 정서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정서적,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적이며 정서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1]. 심리적 통제양육을 하위요인으로 살펴보면, ‘죄책감유발요인’, ‘자율성 통제’, ‘애정 철회’, ‘동일체적양육’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죄책감유발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쌀쌀맞게 대하고 직접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등의 양육 행동을 통해 자녀의 심리를 통제하는 양육을, ‘자율성 통제’는 자녀의 일과 행동을 모두 다 정해주고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것들을 무엇이든지 간섭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양육을, ‘애정철회’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부모가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표현하고 잘못했을 경우 벌을 줄 것을 경고하는 등의 양육을, ‘동일체적양육’은 자녀의 성취는 부모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자녀의 실패는 부끄럽게 여기고 자녀의 성공에는 자신감을 얻는 부모의 양육을 의미한다 [2]. 유아에 대한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정서 불안정을 초래 [3]하는 양육으로서, 유아의 문제행동은 성인기에 행동, 심리, 정신 문제를 발전시키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간주 되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4]. 유아의 정서적 체험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간에, 높은 수준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은 유아기 및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에 불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5].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은 유아의 자기 결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6], 아동기의 SNS 중독 경향성 간에도 정적상관이 있으며 [7], 청소년기에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8]. 전미숙, 손은정 [8]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르면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여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공격성인 반응성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경미 [9]는 어머니가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자녀에게 과도하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면 자녀는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구열과 조기교육 열풍을 고려하였을 때, 자녀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라는 동일체적 양육이라는 본질이 심리적 통제양육의 발동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프롬(Fromm, E)은 ‘소유나 존재냐’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생존의 양식을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 등의 ‘소유’에 전념하는 ‘소유양식’과 자기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삶의 희열을 확신할 수 있는 ‘존재 양식’으로 구별하였다. 사랑 역시 그것이 소유양식이나, 존재 양식이나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10]. 따라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다 자녀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의 공감 능력(parental empathy)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각하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며, 자녀의 정서와 함께하고 이를 언어적,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Moccoby [12]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적 변인으로 공감 능력을 제안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잘 이해할 때, 보다 원만한 부모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서의 매개변인으로 공감 능력이 학교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 [13]도 있다. 공감은 마음에 산소를 불어넣는 일이며, 관계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감이란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매 순간 깨어서 상대의 감정, 사고, 욕구, 소망, 갈등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하는데 상대가 말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속마음까지 알아차리는 민감성이 요구된다 [14]. 이러한 공감의 특성 때문에 공감이 수행되는 맥락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에 몰두함으로써 결국 공감은 창의성에도 영향을 준다 [15]. 반면, 공감은 공격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16]. 이지영 [17]은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자녀의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의 정서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하였다. 부모는 아이의 사회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부모가 어떠한 태도와 정서를 가지고 양육하는가에 따라 아이의 발달과 행동 특징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 [18]가 있고, 정서적 공감 능력이 장애 수용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연구 [19]가 있다. 이러한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20][21]로 하거나,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감 연구 [22][23] 및 장애아동을 위한 공감 연구 [24]가 있으나, 부모의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공감 능력의 긍정적 효과를 생각할 때 유아기 부모의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며,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5]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유머 감각(Sence of Humor)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으로서 [26], 현대인의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밥 멘코프(Bob Menkoff)는 유머 감각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서 잡지사 뉴욕커의 카툰 편집장이 되었고 [27], '즐거운 경영'이라는 경영마인드로 성공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유머는 Ben & Jerry's Ice Cream, Sun Microsystem, Kodak 등과 같은 성공적인 기업들의 조직문화에서 중요한 부분 [28][29]이 되고 있다. 유머 감각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매커니즘이 되었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도 유머 감각이 긍정적 영향 [30]을 주듯이, 생애 첫 번째 대인관계로서 부모의 유머 감각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유머 감각은 인지적이며 정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극을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인 동시에 상황의 부조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31]으로, 자기 향상과 관련된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32]. Coor(1989)는 유머가 사람들 사이를 고무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사물이나 사건의 밝은 면을 보게 해주며, 우스운 것이나 바보스러운 일에 크게 웃음으로써 긴장이 완화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신체적 경험이라 하였다 [33]. Baiyao Zuo [34]는 의도한 유머가 실패하더라도 진지한 대화에서 의외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유머 감각은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 및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인생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데 유용한 매커니즘으로 인식되어 왔다 [33].

이에, 유머 감각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유머 감각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긍정적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 지향적 대처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도록 하여 유아 및 타인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형성한다 [35]. 또한 일상적인 유머를 즐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를 포함한 타인에게 신경질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부정적인 반응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유머 감각은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유머 감각의 영향력에 대한 개인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머 감각은 학령기 아동의 음악적 성향, 군 생활의 적응력, 조직 내 성과향상, 경찰공무원의 직무 열의,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 조직몰입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간호사의 업무성과 향상 [28][36, 37, 38, 39,40]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심리적 통제라는 개인 변인에 미치는 유머 감각 또한 영향력을 따져볼 만하다.

부모의 자기효능감(Parenting Self-efficiency)은 중요한 육아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모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부모들이 낮은 자기효능감 집단보다 아이들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육아 행동을 보여주었음을 증명하였다 [41]. 양육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42]. 양육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 가운데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43].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서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창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44],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45],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영향 [46]을 준다. 조부월 [47]도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전은옥과 최나야 [48]는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와 유아의 행복감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49]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 행동이 긍정적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 행동을 하고,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한다 [50]. 따라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 행동의 직접적인 예측 변인 [51]으로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부모의 애정 차원의 양육 행동은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초래한다 [52]. 그러나 우리나라는 효사상과 가문의 명예 등 전통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꾸중하고 벌하여 부모가 원하는 행동과 성취를 하도록 하고, 일련의 모든 행동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녀에 대한 자율성을 지지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의사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 간의 은유적인 공감이란 바로 대인관계 [53]라는 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공감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영 [54]은 어머니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해 줄 때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발달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유머 감각이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55]을 준다는 사실을 볼 때, 부모-자녀 관계도 대인관계 중 하나로서 부모의 유머 감각이 자녀 양육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관계 형성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교육 및 활동에 있어 유머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6]. 또한 전은옥, 최나야 [48]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에, 양육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통제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 [56][57]은 있으나 양육효능감이 심리적 통제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매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감의 효과와 심리적 통제양육과의 상호적 관련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공감 능력, 유머 감각 및 양육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러한 매개변인이 심리적 통제양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감 및 심리적 통제 양육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감과 심리적 통제양육은 서로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감이 심리적 통제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G 지역에 소재한 H, S 유치원과, 서울 Y 지역에 소재한 W 유치원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만 3~5세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한 가구당 부와 모 2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22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결측값이 있거나 성의 없이 한 줄로 체크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여 203부의 설문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203부의 설문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응답한 99부의 설문지와 어머니가 응답한 설문지 104부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31~35세가 73명으로 36.0%, 36~40세가 86명으로 42.3%이며 30대가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 졸업의 비중이 145명으로 71.4%를 차지하였다. 표 1에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체		
	N	%	N	%	N	%	
연령	30세 이하	3	3.0	13	12.5	16	7.9
	31~35세	36	36.4	37	35.6	73	36.0
	36~40세	43	43.4	43	41.3	86	42.3
	41세 이상	17	17.2	11	10.6	28	13.8
	전체	99	48.8	104	51.2	203	100.0
학력	중학교졸업	1	1.0	0	0	1	0.5
	고등학교 졸업	15	15.2	7	6.7	22	10.8
	대학교 졸업 (전문대 이상)	67	67.7	78	75.0	145	71.4
	대학원졸업	16	16.2	19	18.3	35	17.3
	전체	99	48.8	104	51.2	203	100.0

또한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 연령 및 성별 분포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 연령 및 성별 분포  
 Table 2. Age and gender distribution of children (N=203)

하위요인	만3세	만4세	만5세
남아	4	43	46
여아	6	51	53
전체	10	94	99

## 2. 연구도구

### 1) 부모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IRI검사와 Bryant(1982)의 공감적 각성 검사를 박성희 [58]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인지적 공감 10문항과 정서적 공감 20문항 등 2개의 하위변인으로 총 30문항이다. 본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 .88로 양호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4점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공감능력 검사도구의 하위영역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부모의 공감능력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 및 신뢰도  
 Table 3.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of the parent's empathy ability scale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인지적 공감	10	16, 17, 19, 20, 22, 23, 25, 26, 28, 29	.78
정서적 공감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21, 24, 27, 30	.84
전체	30	1~30	.88
역채점 문항 2, 8, 11, 12, 13, 14, 19, 21, 23, 27			

### 2) 부모의 유머감각

부모의 유머감각을 측정하기 위해 Thorson과 Powell (1993)이 개발한 MSHS(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를 이재선 [59](2005)이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총 20문항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머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머생성’과 유머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유머에 대한 선호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4점 Likert식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유머감각 검사도구의 세부적인 하위영역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부모의 유머감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 및 신뢰도  
 Table 4.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of the parent's sense of humor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유머 생성	12	1, 2, 4, 5, 6, 10, 13, 14, 17, 18, 19, 20	.93
유머에 대한 선호도	8	3, 7, 8, 9, 11, 12, 15, 16	.86
전체	20	1~20	.90
역채점 문항 3, 7, 9, 11, 16			

### 3)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 [6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Parenting Confidence Scale)’과 ‘부모 역할에 있어서 통제력 및 아이를 다루기 어려움(Under Control Scale)’ 등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4점 척도로서 이 검사도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0점이다. Cronbach's  $\alpha$ 는 .78, .80 및 전체신뢰도 .83으로 양호하였으며, 표 5에 양육효능감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표 5 부모의 양육효능감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 및 신뢰도  
 Table 5.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of the parent's parenting efficacy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7	1, 2, 4, 6, 11, 12, 13	.78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8	3, 5, 7, 8, 9, 10, 14, 15	.80
전체	15	1~15	.83
역채점 문항 3, 5, 7, 8, 9, 10, 14, 15			

### 4)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충일, 장유진, 이강이 [2]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지지, 죄책감유발, 자율성통제, 애정 철회, 동일체적양육’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31문항이다. ‘자율성지지’는 심리적 통제와는 상반되는 양육형태로서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이지만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4점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9로 양호하였으며, 구체적인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 및 신뢰도

Table 6.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of the parental of psychological control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자율성 지지	9	1~9	.69
죄책감 유발	6	10~15	.87
자율성 통제	8	16~23	.83
예정 철회	5	24~28	.78
동일체적 양육	3	29~31	.70
전체	31	1~31	.89
역채점 문항 10~31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 이하 유아들의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203부의 설문지를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은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2은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연구문제 3은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이 심리적 통제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정도

유아기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및 심리적 통제양육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공감능력은 아버지(M=2.77, SD=0.30)보다 어머니의 평균(M=3.01, SD=0.26)이 높았고, 30세 이하의 부모들이 31세 이상의 부모보다 평균(M=3.01, SD=0.24)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전문대 이상) 학력요인의 공감능력(M=2.90, SD=0.3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들의 유머감각은 아버지(M=2.71, SD=0.38)보다 어머니(M=2.93, SD=0.34)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1~40세 부모들의 유머감각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4점 만점에 평균 2.47~2.9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공감능력과 유머감각, 심리적 통제요인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중학교 졸업의 1명을 제외하면 4점 척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별, 연령, 학력 변인이 평균 2.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부모들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심리적 통제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심리적 통제  
Table 7. Parental empathy, sense of humor, parenting efficacy, psychological control

범주	N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 효능감		심리적 통제		
		M	SD	M	SD	M	SD	M	SD	
성별	부	99	2.77	0.30	2.71	0.38	2.42	0.20	2.89	0.40
	모	104	3.01	0.26	2.93	0.34	2.44	0.13	2.98	0.32
연령	①	16	3.01	0.24	2.75	0.45	2.42	0.12	2.91	0.33
	②	73	2.86	0.34	2.83	0.40	2.42	0.15	2.99	0.39
	③	86	2.86	0.29	2.85	0.35	2.44	0.18	2.91	0.39
	④	28	2.85	0.31	2.72	0.35	2.44	0.20	2.94	0.32
학력	①	1	2.56	·	2.47	·	2.53	·	2.55	·
	②	22	2.72	0.70	2.83	0.38	2.43	0.17	2.93	0.37
	③	145	2.90	0.30	2.84	0.39	2.43	0.16	2.96	0.39
	④	35	2.84	0.28	2.85	0.30	2.42	0.15	2.96	0.31
①30세 이하 ②31-35세 ③36-40세 ④41세 이상 ①중학교 졸업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교 졸업(전문대 이상) ④대학원 졸업										

###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공감능력 및 유머감각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과 유머감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심리적 통제와 공감능력 및 유머감각의 하위영역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공감( $r=.303, p<.01$ ), 정서적 공감( $r=.230, p<.01$ ), 유머생성( $r=.188, p<.01$ ) 및 유머에 대한 선호도( $r=.281, p<.01$ ) 요인은 심리적 통제양육의 자율성지지 및 죄책감유발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인지적 공감( $r=.224, p<.01$ )은 심리적 통제의 하위영역인 자율성통제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머에 대한 선호도( $r=.162, p<.05$ )는 심리적 통제의 하위영역인 동일체적양육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통제, 애정철회, 동일체적양육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지적 공감은 심리적 통제의 애정철회 및 동일체적양육과 상호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공감능력과 유머감각의 하위영역은 심리적 통제의 하위영역과 부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공감능력 및 유머감각 간의 상관관계  
 Table 8. Correlation among parental empathy, humor sense, and psychological control

변인	공감능력		유머감각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유머생성	유머에 대한 선호도	
심리적 통제	자율성 지지	.303**	.230**	.188**	.281**
	죄책감 유발	.258**	.234**	.144**	.268**
	자율성 통제	.224**	.127	.024	.125
	애정 철회	.086	.053	.105	.032
	동일체적 양육	-.013	.096	-.015	.162*

\* $p<.05$ , \*\* $p<.01$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표 9과 같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 $r=.279, p<.01$ ), 죄책감유발( $r=.193, p<.01$ ), 자율성통제( $r=.167, p<.01$ )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양육효능감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심리적 통제의 애정철회( $r=.108, p<.01, p<.05$ ) 및 동일체적양육( $r=-.031, p<.01, p<.05$ )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 $r=-.403, p<.01$ ), 죄책감유발( $r=-.292, p<.01$ ), 자율성통

제( $r=-.256, p<.01$ ), 애정철회( $r=-.202, p<.01$ )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감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이 높을수록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 죄책감유발, 자율성통제, 애정철회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심리적통제의 동일체적 양육( $r=-.121, p<.01, p<.05$ )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9.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efficacy and psychological control

변인		양육효능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심리적 통제	자율성지지	.279**	-.403**
	죄책감유발	.193**	-.292**
	자율성통제	.167**	-.256**
	애정철회	.108	-.202**
	동일체적양육	-.031	-.121

\* $p<.05$ , \*\* $p<.01$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그리고 양육효능감이 심리적 통제양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Table 10. Influence of sub-factors of parental empathy, humor sense, parental efficacy on psychological control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Delta R^2$	R <sup>2</sup>	F	
심리적 통제	공감능력	상수	61.924	7.44		8.326***	.08	8.76***	
		①	.754	.288	.227	2.617			.08
		②	.142	.152	.081	.931			.05
	유머감각	상수	67.019	6.295		10.646***	.06	7.77***	
		③	.175	.143	.086	1.223			.02
		④	.728	.218	.235	3.347***			.07
양육효능감	상수	122.69	11.04		11.116***	.15	17.28***		
	⑤	-.236	.327	-.066	-.723			.05	
	⑥	-1.534	.328	-.427	-4.674***			.15	

①인지적 공감 ②정서적 공감 ③유머생성 ④유머에 대한 선호도  
 ⑤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⑥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  $p<.05$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80~.99, VIF 지수는 1.01~1.26으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다음으로,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유머생성 및 선호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및 어려움 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전체의 변량의 15%( $R^2=.15$ ,  $F=17.28$ ,  $p<.05$ )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이 추가되어 1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3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변인들이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각 독립변인의 영향력과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및 심리적 통제의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유머감각은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요인별로 큰 차이 없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다른 요인에 비교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 없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공감능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역시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아에 대한 공감과 심리적 통제 모두를 어머니가 양육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박민주 [61]는 취업모 가정의 여성이 많았지만, 여전히 유아 양육에 있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머니가 양육의 주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인지적 공감’이 ‘자율성통제’ 및 ‘자율성지지’, ‘죄책감유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lpatrick(2005)에 의하면 부모의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 신호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다 [62]. 부모가 유아의 신호를 인지하고 동기를 파악하여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함은 물론 통제도 함께한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부모는 유아의 신호와 동기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도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심리적 통제의 주요한 예측요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의 ‘정서적공감’ 또한 유아의 ‘자율성지지’와 ‘죄책감유발’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지만,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인 ‘자율성통제’, ‘애정철회’, ‘동일체적양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유아의 기쁨, 슬픔, 행복 등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부모의 정서적 공감이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애정적이며, 유아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임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인지적공감’, ‘정서적공감’은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인 유아의 ‘자율성지지’와 ‘죄책감유발’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유아의 ‘자율성통제’ 요인에서는 부모의 인지적 공감능력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영숙, 하창순 [63]의 연구에서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인지적공감’은 직접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정서적공감’은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와 자녀의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연구에서 부모의 공감능력 하위요인인 ‘인지적공감’은 ‘자율성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정서적공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유영숙, 하창순 [63]은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 부모의 ‘인지적공감’으로 인한 자율성 통제와 지지가 성장한 이후의 자기통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유머감각의 하위요인인 ‘유머생성’과 ‘유머에 대한 선호도’는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와 ‘죄책감유발’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cGhee [64]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호작용 도구로서의 유머의

사용에 대해 제한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연구의 결과는 유머를 만들고 좋아하고 상황에 맞는 유머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부모의 유머감각이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덕로, 김태열 [65]은 모든 유머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부모가 유머를 사용하여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며, 유머감각에 대한 보다 질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유머에 대한 선호도는 ‘동일체적양육’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녀와 부모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녀의 성공에 환호하고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는 ‘동일체적양육’은 유머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정도인 유머에 대한 선호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써, 유머를 사용하여 은유적인 표현으로 유아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암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Soenens외(2006)가 제안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우리나라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커서 심리적 통제행동을 많이 나타낼 것인데 [66],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유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하위요인인 ‘자율성지지’, ‘자율성통제’, ‘죄책감유발’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유의한 수준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유아기 부모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거나 통제하거나 죄책감을 유발시키거나 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는 정적 상관관계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30%의 영향력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히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유아의 유능한 실행기능의 예측 변인이면서 유아의 높은 정서적,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변인 [67]임을 고려할 때,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에 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자신감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동일체적양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선행연구 [68]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려움이 자녀와 부모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라 여기기 보다는 ‘동일체적양육’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은 다른 관련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변인으로써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과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각 변인들의 긍정적 영향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자료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Barber, B. K.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1996
- [2] C. I. Kim, Y. J. Jang, K. Y. Lee, “Psychological Controlled Parenting Scale for Childhood parent: PCPSC” *아동교육*, 24(2), 23-38, 2015
- [3] K. O. Seul,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Teacher’s Discipline Style on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doctoral thesis in living culture study of Graduate school at Catholic university*, 2017
- [4] Fuyun, Y, Qi, Z, Guangming, R, Song, L, Xiang, N,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oblem behaviours in youths: A three-level meta-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12. 2020
- [5] Pauline, G, Michelle, R, Araceli, G,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xiety symptoms, and emotional regulatory processes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 Psychiatry*, Vol 68. 2020
- [6] K. M, Chang,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paternal/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ra-extraversion characteristics on their self-determination and school achievement”, *초등교육연구*, 20(1), 165-180. 2007
- [7] D. H. Kim, J. A. Choi,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SNS addiction tendency” *놀이치료연구*, 23(2), 19-34, 2019
- [8] M. S. Chon, E. J. Son, “The influence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ts’ aggression - The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청소년시설환경*, 11(2), 19-27, 2013
- [9] K. M. Yu, “The relationship of a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 self-elasticity of infan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on effect”, *master’s thesis in Counseling Psychology of Graduate school at Hanyang university*, 2020
- [10] Y. J. Chang, “Making Bonsai Trees of Mokdong Mothers: Understanding the Contextual Structure and Limitations of Private Education for Children”, *교육인류학연구*, 17(1), 159-195, 2014
- [11] Y. J. Jo, “The study of difference between the maternal empathy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 one responded by mothers themselv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23-1146. 2010
- [12] Maccoby, E. E.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28(6), 1006-1017. 1992
- [13] M.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pathy ability and self-resilience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Dong-A university*. 2013
- [14] S. H. Hur, Y. J. Nam, S. K. Na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pathy Capability Scal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109-116. 2019
- [15] H. J. Yang, S. J. Yang, “Sympathy fuels creativity: The beneficial effects of sympathy on originality”,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21, 132-143. 2016
- [16] Frits. A. G, Koos. B. Cees. B, Herman. W. B, “Judgments of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 Perceived Control, Anger, Pity and Sympathy in Young Dutch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4), 309-327. 2002
- [17] J. Y. Lee,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elf-regulation ability by perceived level of parents’ empathy 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Dong-A university*, 2017
- [18] E.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young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etic a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pathetic ability”, *유아교육연구*, 38(4), 5-23, 2018
- [19] E. M. Lee, S. Y. Kim, S. H. An. “Elementary Students’ Attitudes toward Disabilities: Knowledge, Self - esteem, and Empathy”, *재활심리연구*, 23 (4), 725-738. 2016
- [20] Y. H. Go, “The effects of empathy training program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21] J. A. O, “(The) effect of peer counseling program on the empathy ability of elementary students”, *Mas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in Kosin University*, 2006
- [22] E. H. Lee, “The Effect of the Empathy ba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Empathy ability and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014
- [23] Y. S. Kim, “The Effects of Integrated Counseling Program on Self-Efficacy, Self-Regul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At-Risk Youth”,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Seoul Venture University*, 2020
- [24] Y. J. Kim,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Based on Empathy Training on the Empathy Ability and Social Development for Intellectual Disability Children”,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yungsung University*, 2014
- [25] H. W. Kim, “The effect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empathetic ability,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regulation”,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Dong-A university*, 2019
- [26] Berlyne, D, E, “Laughter, humor, and play”. *In G. Lindzey & F.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Reading. MA : Addison-*

- Wesley, 1969
- [27]Angela, L, D(2016). GRIT, *비즈니스북스*, 김미정 역.
- [28]D. R. Lee, T. Y. Kim, "The effect of Humor on Performance in an Organization", *경영학연구*, 38(3), 643-667. 2009
- [29]D. R. Lee, T. Y. Kim, "The Effects of Leader Humor on Team Performance: Focusing on the Control Effect of Trust and Self-esteem in the Organization",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9
- [30]H. H. Chae, M. Y. Choi, "Effects of Perceived Daily Stress and Sense of Humor on Quality of Life among School-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1), 18-26. 2018
- [31]M. S.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Humor and Stress Management",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Wonkwang university*; 1992
- [32]Fritz, H. L, "Why are humor styles associated with well-being, and does social competence matter? Examin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reappraisal,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4(1), 2020
- [33]Y. J. Heo, "Humor Sense and Humor Style of Pre-service Teacher and Change of Teacher Education", *교육방법연구*, 22(2), 19-49. 2010
- [34]Baiyao. Z, "Why does humor fail or occur unexpectedly? - an account of humor within an extended relevance theory". *Journal of Pragmatics*, vol(160), 1-13. 2020
- [35]J. H. Kim, "The influence of humor and leader-member exchange on child care teacher' burnout". *생태유아교육연구*, 12(3), 105-124. 2013
- [36]N. W. Gu, T. S. Choi, "Relationships among Humor Sense and Style with Seniors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Recognizable to the Subordinate", *상담학연구*, 10(3), 1757-1768. 2009
- [37]S. Min, Y. J. Jung, H. S. Kim, "Correlation between a Sense of Humor in Nurses and Their Performance",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7(4), 1427-1444, 2004.
- [38]I. O. Sim, E. J. Hwang, "Impact of Resilience in school-age children related to sense of music and hum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593-605, 2015
- [39]J. Y. AN, J. H. Kwun, "A Study on the Effects of Leader's Sense of Humor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상업교육연구*, 30(3), 281-306. 2016
- [40]W. S. Im, "The Effect of Police Officers; Humor Sense on Job Engagement",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4), 157-180, 2016
- [41]Susan D. H, Sawako. S, Soojung. K, Ayumi. N, Qian. W, Emily. J. Cl, Maedeh. G, Kyoko. I, Sayuri. N, "Development and cross-national validation of a revised version of the Berkeley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7(2), 309-320. 2019
- [42]Y. H. Choi, H. J. Mo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Spouse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 Children", *유아교육학논집*, 20(6), 407-424. 2016
- [43]W. S. Choi, S. B. Je, K. M. Lee, "A Study on the Self-efficacy and Parent Role Satisfaction of Employment Mothers with Early Childhood". *부모교육연구*, 4(1), 87-108. 2007
- [44]B. Y. Lee, "Relations among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ing Behaviors and a Child's Creative Tendency", *한국보육학회지*, 12(4), 115-132. 2012
- [45]E. J. Bang, J. H. S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lief, Parenting Effectiveness, and Infant Self-esteem", *한국심리학회지*, 26(2). 107-125. 2013
- [46]K. E. Kim, "Maternal Depression,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Play and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인간발달연구*, 18(4), 1-17. 2011
- [47]B. W. Cho, "Study on Dependence of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Verbal Control Style" ,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133-157. 2012
- [48]E. O. Jun, N. Y. Choi, "The effect of mother's happin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infant's happiness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한국영유아보육학*, 82, 103-126. 2013
- [49]I. H. Lee, J. E. Park, S. Y.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4), 81-91, 2010
- [50]Y. A. Ja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n daily stress of school-age children",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3(2), 163-175. 2012
- [51]M. J. KIm, K. n. Lee, "Effects of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 Self-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53-271, 2011
- [52]J. E. Lee,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Daily Stress of Infant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Korea university*, 2019
- [53]Clarkson, S, H, “The International field in transactional analysis”, *TA Journal*, 22, 92-98, 1992
- [54]S.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utonomy Suppor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and Empathy” *master’s thesis of 상담대학교 학원대학교*, 2019
- [55]K. O. Yun, “The effect of Humor Sense on Self-esteem and Relationship Quality : Focused on Parent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Myong Ji university*, 2011
- [56]H. J. Pack, J. H. Park,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efficacy on social anxiety in middle-school boys and girl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2(3), 21-39. 2015
- [57]T. S. Choi, J. K. Kim,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arly Adolescent Self-Efficacy on Adolescent Externalized and Internalized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8), 363-384. 2015
- [58]박성희, 공감과 친사회행동, *서울:문음사*, 1997
- [58]J. S. Lee,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nse of Humor and Humor Style on Stress Management and Health”,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Myung Ji university*. 2005
- [60]J. Y. An, “(The)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Ewha university*, 2001
- [61]M. J. Pack, “(A) comparative study on paternal attitude and paternal stress among fathers of preschoolers according to maternal employment”,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Pusan university*, 2014
- [62]S. H. Song, E. K. C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s Affective Empathy, a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Korean J. oh Child studies*. 36(3). DOI : dx.doi.org/10.5723/KJCS.2015.36.3.59, 2015.
- [63]Y. S. Yu, C. S. Ha,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s’ Behavioral Control and Self-Control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2), 2016, DOI : 10.15703/kjc.17.2.201604.197.
- [64]McGhee, P. E, “Children’s appreciation of humor: A test of the cognitive congruency principle”. *Child Development*, 47(2), 420-426. 1976, doi:10.2307/1128797
- [65]D. R. Lee, T. Y.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Supervisor Humor on Subordinates’ Individual Creativity: The Mediating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Team Human Capital”, *인사조직연구*, 21(1). 2013
- [66]S. Y. Park, E. K. Lee,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Parents of Korean Adolescent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d*. 30(2), 2007
- [67]J. H. Moon, N. N. Shin, “The Effects of Maternal Autonomy Support on Preschoolers’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Korean J Child Stud*, 38(6), 2017, DOI: <https://doi.org/10.5723/kjcs.2017.38.6.17>
- [68]S. H. Cho, “Child-rearing efficacy, stress, and attitudes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at Inha university*, 2015